

일동종고, 학생기숙사 착공식

재학생 실력 향상의 토대 마련



일동종합고등학교는 지난 11일 학생기숙사 건립의 첫삽을 뜨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일동종합고등학교(교장 남궁돈)는 지난 11일 일동종고 실내체육관에서 기숙사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은 재학생 및 남궁돈 교장, 최대중 포천시의회위원장, 포천교육청 이용희 학무과장, 송홍섭 운영위원장, 강옥진 학부모회장, 박남진 동문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동종고 학생기숙사는 지난해 12월 놓여준 우수고 시범육성사업 확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결정돼 추진되었으며, 올해 6월 경기도교육청 대응경비 5억원 지원과 7월 2억 5천만원의 추가 지원이 확정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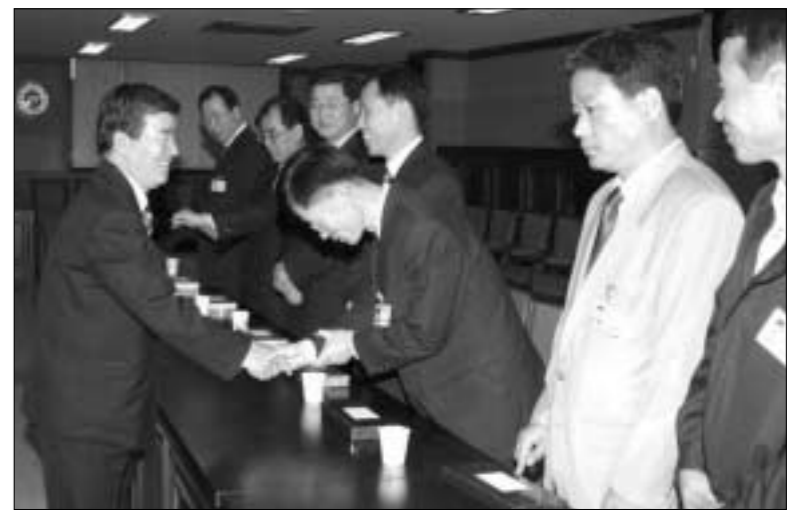
실계에 들어갔다. 또 올해 9월 기숙사 도면설계를 완료하면서 포천시가 10월 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이날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학생기숙사 착공으로 예상되는 총예산은 건축비 13억원, 식당 6천만원, 비품 1억여원 등 총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시설엔 총 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숙소 18, 휴게실 3, 학습실 3, 사감실 1, 기타 2실, 식당, 체력실 등이 갖춰지게 된다. 남궁돈교장은 "기숙사 착공으로 일동종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는 일동지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이 완공되면 우선 대상으로 원거리통학 학생과 성적우수학생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며 "입주학생선발 등은 준공에 맞춰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기숙사는 (주)드림건설의 시공으로 내년 5월 중 준공할 예정이다. 지희배기자 94spice@hanmail.net

"그린벨트내 학교 건립때 훼손부담금 축소" 개정요청

경기도 "계획중인 116개교 모두 신속편 부담금만 2000억"

경기도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학교를 지을 때 부과되는 훼손부담금이 도로용지 등 다른 공공시설보다 높게 책정돼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적쟁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학교를 신축할 경우 훼손부담금 감면율이 50%인데 비해 군사·안보 시설과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은 80%에 이르러 형평성에 어긋나 법적쟁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훼손부담금이란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그린벨트가 아닌 인근지역의 공시지가에서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자가채역에 토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학교는 50% 감면율 상태에서 이 비용을 해당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지난해 시흥시 매화동 그린벨트에 건립된 매화초등학교는 부지매

입비가 9억4000만원인데 비해 훼손부담금은 13억1000만원에 달하는 등 훼손부담금이 학교건립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에서 그린벨트에 설립승인을 받은 학교가 104개, 추진중인 학교가 12개교이며, 이중 2001년 승인된 16개교 외에 2002년 이후 승인받거나 추진중인 상당수 학교는 부지매입이 끝난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훼손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인구 급증으로 많은 신설학교가 필요한데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학교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학교신설에 필요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 2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직원 자녀들이 고간의 고고된 실력들을 심부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날은 자녀를 위해 온 정성을 쏟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능 응시자 편의 제공 나선 관광버스회사

포천 금마고속관광 17일 수능시험장까지 수송

지난 17일 대입수능 시험 당일 포천에서 의정부 시험장까지 나가는 고3 수험생을 위해 4년제 관광버스를 제공한 회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에 위치한 금마고속관광(주)(사건·대표이사 이복용)이다.



금마고속관광(주)는 4년 전부터 포천고등학교와 포천종합고등학교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수험생은 편안하고 쾌적한 이동을 위해 수능당일 투입되는 버스는 전날 철저한 정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복용 대표이사는 "매년 수능때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능 응시학생들이 새벽 일찍 버스승강장에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과 43번 국도에 수능 응시자들이 탑승한 자가용이 2백~3백대가 증가되면서 유발되는 교통혼란으로 수능 응시학생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마고속관광(주) 버스를 이용해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른 포천고등학교 김 모 학생은 "학교에서 출발하여 수능시험장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서 시험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마고속관광(주)는 그동안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문화제 답사 등에 참여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불우학생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부모 소득·학력·문화생활, 자녀 성적에 영향

풍요로울수록 자녀의 학업성적 좋은 것으로 조사돼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고 가정 내 문화생활이 풍요로울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간 전국 중학교 3학년 생 2천명과 일반계, 실업계 고교 3학년생 각각 2천명씩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 부모 학력, 가정 문화생활 등과 학생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학생들의 상위권 상위권 30%, 중위권 40%, 하위권 30%로 나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이 성적 상위권에서 44.1%, 중위권에서 31.0%, 하위권에서 26.5%로 나타나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13.1%포인트, 하위권보다 17.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 고교에서도 성적과 가구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으나 실업계 고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모 학력과 자녀 성적의 관련성 역시 중학생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가 상위권에서 37.6%, 중위권에서 25.7%,

하위권에서 15.8%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실업계 고교의 경우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성적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학교 성적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로 진로가 나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영화나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문화생활의 차이가 자녀 성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은 중학생의 경우 가정 내 도서 보유권수가 300권 이상인 경우가 상위권에서 24.4%, 중위권에서 12.5%, 하위권에서 6.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영화나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문화생활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상위권에서 38.5%, 중위권에서 51.0%, 하위권에서 58.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교와 일반계, 실업계 고교 모두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적이 높았고, 학생들이 방과 후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적이 우수했다.

이외에 성적이 좋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준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경기 공립중등교사 17.86대1** 경기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실시했다. 올해는 총 1천19명 모집(초등보건 및 초등사서교사 포함)에 1만8천197명(전년도:20,101명)이 지원하여 평균 17.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어교과는 149명 모집에 3천54명(20.50:1)이 지원하여 선발교과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렸으며, 정보·컴퓨터 교과는 10명 모집에 569명(56.9:1)이 지원하여 선발 교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모집인원이 920명 줄었고, 예년에 비해 1천900여명의 지원자가 줄었으나, 평균경쟁률은 지난해(전년도10.32:1) 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교육청이 실시한 제8회 초·중학생 촌극·팝송부르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Do-Re-Mi song을 열창하고 있다.

초·중학생 영어 촌극·팝송부르기 대회 포천교육청, 영어교육의 효과 증진 기대

경기도포천교육청은 지난 11일 초·중학교 학생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초·중학생 촌극·팝송부르기대회'를 개최했다. 영어교육을 원칙으로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효과증진, 생활영어 활용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초·중학생들의 영어 촌극과 중학생들의 팝송 부르기로 치러졌다. 15개의 초등학교가 참가한 초등 학교영어촌극에서는 송우초(정다애 학생의 9명)의 'Keep the Earth Clean and Beautiful!'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왕방초(김지나 외 6명)의 'The wizard of Oz'와 포천초(마승희 외 6명)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관내 7개의 중학교가 참가한 중학교 영어촌극은 동남중(김봉수 외 7명)이 Princess Show White로 최우수, 갈월중(김태희 외 11명)의 Snow-Black과 삼성중(정휘상 외 7명)의 Snow White Princess가 우수상

을 수상했다. 팝송부르기대회는 중학교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최우수에는 If you come to me를 부른 동남중(김수지 외 5명)이 우수에는 The Rose를 부른 이동중(박애정 외 1명), Do-Re-Mi song의 관인중(김선영 외 8명), I will follow him의 영복중(김혜지 외 9명)이 선정됐다. **윤증성의 미국어 따라가기** 72. 아주 젊어 보이시네요. You look very young. 유류배어튀엄 * 고맙지만, 50이 되어 가는데요. Thanks, but I'm getting fifty. 뽕스, 버러임게림후후피 73. 오늘 컨테스트에서 참 잘했어요. You did a good job in today's contest. 유디러글잡 인투데이스컨테스트 * 뭐 언어가 좋아 그런걸로 생각해요. I think, I just got lucky, that's all. 아이딩 아이저스갓타갓갓델 ☎문의:윤증성 (017-723-4977)coolyoon@nate.com

제4회 '으뜸 경기학생 대상' 시상식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본관 제3회의실에서 제4회 '으뜸 경기학생 대상'시상식을 가졌다. '으뜸 경기학생 대상'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효행, 사은, 봉사, 선행, 자립, 체육, 예능, 기능 등 8개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표창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 정립과 소질·적성에 따른 자아실현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 시상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 이 함께 합니다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 < 생산 품 목 >**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갈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쫄면·썩국수

☆영동 1호 세트 100g×36人分 3.6kg

☆영동 2호 세트 100g×24人分 2.4kg

본 사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 화 : 031-535-5773 // 팩 스 : 031-534-1313
E-mail : www.youngdong93@hanmail.net